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99%가 미국산 GMO 인거 알고계시죠?

무농약 밀가루 판매금액 1kg 가격(한국 2600 원)(미국 7330 원)(일본 5010 원)
우리가 수입하는 gmo 밀가루는 수입가격 1kg 에 122 원 판매가격 1kg 1,000 원

1992 년 10 월 호주산 수입밀가루에서 살충 효과가 있는 농약성분인 "치오파네어트메틸"이 허용기준의 16 배나 함유되어 10 만 부대가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1993 년 2 월에는 미국산 수입밀 1 만 9 백 6 톤(13 억 3 천만원어치)에서는 그것이 허용기준치의 130 배가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치오파네이트메틸은 곡물을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 변질을 막기 위해 수확한 뒤에 뿌리는 농약으로 하루 4mg 이상을 섭취할 경우 인후통, 객담, 피부발진, 결막염,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고, 발암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들여와 항구 부근의 곡물창고(사일로)에 저장할 때 다시 한번 농약을 흠뻑 뿌려준다.

1970 년대만 해도 전국 어디에서나 밀밭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 밀 재배면적은 9 만 7 천 ha 에 달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밀 생산도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었다. 1990 년도에 이르러서는 종자도 구하기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1 인당 밀 소비량 35kg, 99%미국에서 수입

이렇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 미국에서 밀을 무상 원조한 이유도 있지만, 밀의 관세율이 2%에 불과하여 밀에 관한한 이미 'FTA 상황'이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 관세가 우리 땅에서 밀을 사라지게 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밀 관세율은 200%가 넘고 중국도 18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990 년대 초반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효과로 1996 년에는 2,787 ha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듯 했으나, 소비가 더 이상 늘지 않아 다시 줄기 시작했다. 그래도 요즈음 밀 재배면적이 다소나마 늘어난 것은 보리 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보리농사를 제한하는 바람에 밀농사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004 년 재배면적은 3,800 ha에 생산량은 1 만 2,600t 이었다. 반면에 해마다 밀 수입량은 무려 400 만 t(약 200 만 t 씩 식용과 사료용)이라고 한다. 우리밀 생산량은 0.25%인 셈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1 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5kg 에 달한다. 주식인 쌀의 연간 소비량이 80kg 에 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35kg 은 상당한 양이다. 더구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약 범벅 수입밀

우리가 수입해오는 400 만 t 가량의 밀은 거의 전량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은 대부분 미국의 남부지방인 미시시피강 하구에 있는 도시인 뉴올리안즈에 모인다. 이곳에 집하된 밀은 배에 실려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여 태평양을 건너 국내의 부산이나 인천의 항구로 들어오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의 항해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적도 부근을 항해하게 되는데 배 갑판의 온도가 무려 5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밀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보존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국소비용 밀과는 다르게 수출용 밀에는 이러한 약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수확 후 농약처리 법제화'(Post-harvest treatments)라고 한다. 작물이 자라는 기간 동안보다 수확한 후에 농약처리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작물 성장기간에는 비와 바람이 농약을 씻어주기도 하지만, 수출을 위해 방부제나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성분이 그대로 알곡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밀 뿐만

아니라 수입 감자, 옥수수, 오렌지, 레몬, 바나나 같은 것이 포스트 하비스트 처리를 하는 농산물로 유명한 것들이다.

살균제로는 구아자닌, 디페노코나졸, 카벤다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벌레나 알을 죽이기 위해서는 메치오카브, 벤디오카브와 같은 살충제와 이 밖에도 마라치온, 아레스린 시화화칼슘, 염화메칠렌 등이 사용된다. 방부제로는 클로로포름, 클로로파크린 등 21 가지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밀을 배에 싣기 전에 농약물을 폭포처럼 붓는다고 한다. 수년 전에 그 광경을 찍은 비디오가 언론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잊고 산다.

1992 년 10 월 호주산 수입밀가루에서 살충 효과가 있는 농약성분인 "치오파네어트메틸"이 허용기준의 16 배나 함유되어 10 만 부대가 불법으로 유통되었고, 1993 년 2 월에는 미국산 수입밀 1 만 9 백 6 톤(13 억 3 천만원어치)에서는 그것이 허용기준치의 130 배가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치오파네이트메틸은 곡물을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 변질을 막기 위해 수확한 뒤에 뿌리는 농약으로 하루 4mg 이상을 섭취할 경우 인후통, 객담, 피부발진, 결막염,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고, 발암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들여와 항구 부근의 곡물창고(사일로)에 저장할 때 다시 한번 농약을 흠뻑 뿌려준다.

우리가 먹는 밀은 모두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수입 밀가루에 벌레를 잡아 넣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식빵에 곰팡이가 피는지 살펴보면 된다. 어느 절의 스님은 재래식 화장실에다 밀가루를 뿌린다고 한다. 그러면 구더기가 꼬이지 않아서 화장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우리밀 결코 비싸지 않다

우리밀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굳이 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밀은 10 월 하순에서 11 월 초순에 파종을 하며 파릇파릇 싹이 자란 상태에서 겨울을 난다. 병충해가 한창 들끓는 5 월 하순경에 수확을 하므로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입밀은 여름에 자라므로 밭에서도 농약을 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밀 알곡은 40kg 한 가마니당 4-5 천원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밀은 40kg 한 가마니당 3 만 9 천원 정도이다. 따라서 알곡상태로는 8-9 배, 밀가루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밀가루 1kg 에 1,000 원 우리밀 2,600 원으로 2.6 배이다. 그러나 가공품의 경우 우리밀은 국민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상거래 이익률 보다 2-3 배 낮은 판매가를 책정하므로, 우리밀 라면의 경우 1.8 배 정도이며 기타 빵류 및 냉동제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 더구나 우리밀이 무농약, 무공해제품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국제곡물시장의 무농약밀가루를 기준으로 보면 무농약 우리밀가루는 오히려 싼 가격이다. 백밀가루 1kg 을 비교해보면 우리밀 밀가루 2,600 원, 미국산 유기농밀가루 7,330 원, 일본산 무농약 밀가루 5,010 원으로 2 배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 우리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농약으로 범벅이 된 밀은 국내로 들어와 제분공장에서 표백제까지 사용하며 새하얀 밀가루로 거듭난다. 그 과정에서 껍질과 씨눈은 다 날아가 버린다. 껍질에 있던 섬유질은 온 데 간 데 없고, 씨눈에 들어 있던 노화방지 물질과 비타민들도 다 날아가 버린다. 밀 속알갱이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것들은 껍질과 씨눈이 함께 섭취될 때라야 몸을 제대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짜 좋은 것은 다 없어졌다. 별 영양가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곱게 간 수입산 하얀 밀가루이다.

이 밀가루로 만든 식품들을 보자. 과자, 빵, 케익, 피자, 라면, 쫄면, 국수, 칼국수, 스파게티, 짜장면, 우동, 짬뽕, 튀김, 소세지... 주의깊게 살펴보면 수입산 밀가루가 들어가는 식품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놀라게 된다. 년간 1 인당 쌀소비량이 80kg 인데 비해 밀은 35kg 이니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수입산 밀가루의 만연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토피에 시달리고 성인들은 당뇨, 그리고 3 명당 1 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화학물질의 섭취 탓이라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농약을 통해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으뜸이 수입 밀가루이다.

이제 우리밀로 만든 제품에 주목할 때이다. 밀은 통밀을 갈아서 먹어야 한다. 농약을 치지 않은 우리밀은 통째 갈아서 먹을 수 있다. 맛은 거칠지만 영양 만점이다. 우리밀로 만든 빵을 먹고 수입밀로 만든 식품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우리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농가소득이 증가해 농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며 수입 밀에 담긴 농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전자조작 음식, 일명 GMO에 대해 아시나요?
미국 모회사에서 돈을 벌려고 농작물 유전자를 조작했는데요.

이러한 음식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 볼 때 신경 곤두세우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미국산 밀/옥수수/감자에 GMO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에 들어가는데요.
간장/식용유/두부/과자/라면/빵 등에 들어갑니다.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국산 GMO밀을 수입한다는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업체와 제품들을 살펴볼게요.

CJ - 해당 브랜드 = **뚜레주르, 제일제당,백설, 해찬들,비비고**
대상 - 해당 브랜드 = **청정원**
사조 - 해당 브랜드 = **해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이미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으니
웬만하면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아래는 GMO제품들이 인체에 끼치는 연구결과 입니다. 참고하세요.

2007년 =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몬산토 GMO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간, 신장 등에 독성**
출됐다는 발표

2011년 러시아 = 과학자들이 재차로 GMO 식품이 **여성의 자궁내막과 외연의 상관적인 질병발생율 상승 현상 발표**

2008년 = 미국과 이태리의 과학자들이 GMO가 **면역계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제출한 사건**

2009년 = 프랑스에서의 **GMO가 간장과 신장에 끼치는 위해 보고**

2010년 = 2월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동으로 GMO 위해성 선언

영국 의료연합 = 유전자조작식품 속의 **항생제내성 표시 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써 건강상의 위**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하다는 성명을 발표함

2002.7. =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 연구결과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장의 일부를 절개한 사람 **7명에게 먹인 결과 3명의 장내 박테리아에서 살충성 유전자가 검출**
음 .

2000.5 =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에서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
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오리건주서 발견, 각국에 통보…농무부, 종자 유출 경위 조사
한국 전수검사…일본 수입중단…EU 선적물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돼 관련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 밀의 주요 수입국들은 미국 밀 수입 중단이나 전수검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29 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밀이 오리건주의 한 밀밭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자 유출 경위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은 허가됐지만 유전자 조작 밀은 소비·판매가 불가능하고 재배도 일부 연구목적 외에는 철저히 금지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것과 같은 종류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의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종자다.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사 브랜드 '라운드업'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밀을 1998～2005 년 개발, 농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유전자 밀에 대한 여론 악화와 시장성 부족 등으로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번에 확인된 유전자 조작 밀은 오리건주의 한 농부가 봄밀과 겨울밀 재배시기 사이에 자라난 밀을 없애려고 제초제를 뿌렸다가 일부가 죽지 않자 오리건 주립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발견됐다.

오리건주립대는 문제의 밀이 몬산토가 개발하던 유전자 조작 밀과 같은 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유전자 조작 밀이 몬산토의 연구 재배지에서 해당 밀밭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길러졌는지 등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농무부도 "섣부른 추측은 할 수 없다"며 언급을 거절했다.

농무부는 다만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먹어도 안전하며 시중에 유통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미국 밀 수입국 정부에 유전자 조작 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스쿠스 농무부 차관은 "이 상황이 음식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무역 상대국들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 관련 산업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몬산토의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다.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 대해 전수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통 중인 밀가루와 가공식품 수거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검사에서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검출되면 즉시 반송 조치된다. 특히 유통 중인 식품에서 유전자 조작 밀가루 등이 검출되면 총리실 소속

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신식품전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추가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도 이날부터 미국산 일부 밀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2 만 4 천 926 만 t 의 수입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미국산 일부 밀의 수입 중단은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의 시장 진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요 곡물수입업체들은 밀가루 수입을 위한 입찰을 포기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산 밀 선적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검출되면 이를 반송 조치키로 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산 밀에 대한 수입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현 단계에서는 없지만 수입중단 조치가 이뤄지다면 EU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과 대만, 필리핀 등 미국산 밀 주요 수입국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다. 미국은 이전에도 유전자 조작 식품 논란으로 인해 농산물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2006 년 독일 등 유럽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 쌀이 발견돼 유럽 각국과 일본에서 미국산 쌀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는 등 조처를 내렸다.

오리건주 농업부장 케이티 코바는 "오리건주에서 자라는 밀의 90%가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 밀의 발견은 무역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며 "철저히 금지된 유전자 조작 밀이 (일반) 곡물 재배지로 흘러들어왔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반응도 걱정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유전자조작 식품에 민감한 수입국들은 펄쩍 뛸 것"이라며 "이들 국가가 (오리건 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미승인 미국 GMO 밀 수입 관련 검사강화(종합)

유통 중인 밀가루 수거검사도 시행
일본은 이미 수입 잠정중단…안전성·대응수위 논란 일 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 보건당국이 수입 단계에서 미국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에 대해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미국 오리건주의 밀 경작지에서 재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유통 중인 밀가루 수거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몬산토의 미(未)승인 GMO 밀(품목명 MON 71800)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다고 30 일 밝혔다.

모든 GMO 작물은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수입도 해당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가능하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승인받지 않은 GMO 밀 'MON 71800'이 발견됐다.

몬산토는 이 품종을 1998~2005 년까지 미국 16 개 주에서 시험 재배하고 승인을 추진했으나 당시 부정적인 여론으로 상업화를 포기했다. 미국 당국은 미승인 GMO 밀이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 지난 29 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수입단계에서 오리건주 밀과 밀가루는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에서 미승인 GMO 가 나오면 즉시 반송 조치된다.

식약처는 또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오리건주의 밀가루와 오리건주 밀로 만든 밀가루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할 계획이다.

유통 중인 식품에서 미승인 GMO 유전자가 검출되면 총리실 소속 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신(新)식품전문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 추가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미승인 GMO 밀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이미 수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미국산밀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이 오리건주 밀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 대응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특히 오리건주 수입 물량은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밀의 3 분의 1 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난 2010 년 이후 오리건주에서 수입된 미국산 밀은 562 건, 171 만 t 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미국산 밀가루는 3 천 352t 이 수입됐다. 이에 따라 GMO 반대 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GMO 안전성과 대응 수위를 놓고 논란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안전성 검토도 필요하지만 안전하다고 해도 미승인 GMO 는 수입유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서 유전자변형 밀 발견…수입검역 강화

(AP=연합뉴스 DB)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유전자변형(GM·genetically modified) 밀이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사료용 밀의 검역을 강화한다고 31 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밀 수입 선박별로 1 ㎏ 이상을 채취해 GM 성분 포함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날부터 선박 내 창고별로 1 ㎏ 이상을 채취해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밀을 포함한 모든 사료용 수입 농산물을 놓고 병해충 검역과 함께 GM 혼입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료용 수입 밀에서 GM 성분이 검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사청은 30 일 오리건주의 한 밀 농장에서 유전자변형 밀이 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식물검사청이 확인한 밀은 1998~2005 년 세계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사가 시험재배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밀로 알려졌다.

오리건주에서 자라는 밀의 90%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사료용으로 미국산 밀 119 만 6 천여 t 을 수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유전자변형 밀이 수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 검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승인 GMO 우려' 밀, CJ·대한제분 등 9개업체 공급

(AP=연합뉴스 DB)

1차 유전자검사 결과, 6월 첫째 주 공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계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는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된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내에 들어온 밀가루가 주요 제분업체에 대부분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건주의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CJ[001040], 대한제분[001130], 삼양밀맥스, 동아원[008040], 삼화제분, 한국제분, 대선제분 등 7개 업체를 지난 30일 방문해 재고를 파악하고 검사대상물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오리건주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소규모 업체 2곳에도 검사직원을 파견했다.

GMO 유전자 검사결과는 6월 첫째 주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승인 품종이 한국으로 수출됐을 가능성을 통보받고 오리건주에서 수입되는 밀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미승인 GMO 혼입 우려가 제기된 오리건주 밀은 국내 제분업체 대부분에 공급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밀 공급국가이고 국내 들어오는 미국산 밀의 약 3분의 1이 오리건주에서 출발할 정도로 많다.

최동미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오리건주에서 수입된 밀이 모두 오리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다"며 "오리건주는 수출 밀이 모이는 집결지여서 다른 곳에서 생산된 밀도 이곳을 통해 국내 수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GMO 밀이 미승인 종자이긴 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인 몬산토가 안전성 검증을 받고서 승인 절차를 밟는 중에 상품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밀을 먹더라도 인체 위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용화된 적도 없는 밀이 개발된 지 8년 이상 지난 시점에 밀 재배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종자업계의 GMO 유통 관리 부실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현재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중인 밀과 밀가루에 미승인 GMO가 섞여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미국산 밀 구매 잠정중단(종합)

(AP=연합뉴스 DB)

"GMO 밀 수입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국내 제분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전자변형(GMO) 종자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산 백밀의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한국제분협회(회장 이희상)는 31 일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GMO 밀'이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국 발표와 관련, 식약처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가 된 미국산 백맥의 구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내 제분업계는 매년 미국 정부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밀이 상업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밀을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전날부터 오리건주의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7 개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내달 첫째주 나올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그러나 문제의 GMO 밀이 실제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라며 "다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소량으로 재배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분협회 차원에서 밀을 공동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GMO 농산물 자체의 안전성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승인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밀은 오리건에서 생산되는 '소프트화이트' 품종의 봄밀"이라며 "오리건산 소프트화이트는 90% 이상이 겨울밀이기 때문에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양일 뿐"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일로 밀가루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GMO 밀 수입 가능성보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우리나라의 밀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산 밀을 수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한숨을 쉬었다.

홍종학,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밀 파동이 발생한 가운데 식품의 유전자변형(GMO)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31 일 주요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 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식품인 수입 식용 GMO 옥수수는 전분, 물엿, 식용류 등으로 가공돼 주류, 과자,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주요 원재료 함량 5 순위 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GMO 에 대해 부처별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산물 등에 '무(無)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다음달 3 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공동으로 'GMO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 논란 다시 불붙나>

'유전자조작 옥수수 물러가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몬산토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 전 세계 몬산토 반대의 날 기자회견'에서 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세계 초국적 농식품 복합기업 '몬산토'에 대해 유전자조작 종자 생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3.5.24

식약처,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이유 대며 "GMO 수입 내역 공개 불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유전자변형(GM·genetically modified) 밀이 발견되고, 해당 밀가루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GM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제도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식약처가 현재 관련 안전성 검사와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더 세밀하고 투명한 관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GMO란 무엇인가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 한 생물의 특정형질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끼워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춰 개발한 것을 말한다. 크게 유전자재조합 식물·동물·미생물로 분류된다.

GMO는 식품뿐 아니라 가축사료·의약품·에너지원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M 옥수수는 식품과 사료는 물론 포도당 주사액, 자동차 연료용 에탄올 등의 생산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GM 농산물은 지난 1996년 처음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2010년 현재 콩·옥수수·면화·유채 등을 중심으로 29개 국가, 무려 1억 4천 800만 ha 면적의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 독성·알레르기 등 평가 통과해야 식품 사용..국내 101종 승인

GM 식품은 이 같은 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GM 식품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이 신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GM 식품의 안전성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GM 식품 개발업체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 산하 GM 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형태다.

GM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기존 일반 식품과 GM 식품간 차이를 밝히고, 이 차이 때문에 독성이나 알레르기 요인이 발생하는지, 영양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소화성, 1회 투여 독성, 90일 투여 독성, 혈청실험 등을 통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차이가 있는지, 이를 섭취했을 때 영양 불균형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본다.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GM 식품은 모두 101가지로, 종류별로는 농식물 84종, 미생물 1종, 식품첨가물 16종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GM 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현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승인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는 1998~2005 년까지 미국 16 개 주에서 문제의 밀 종자를 시험 재배하고 승인을 추진하다 상업화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농무부(USDA)는 이번에 발견된 GM 밀이 인체에 해가 없고, 상업적으로 유통된 증거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시민단체 "GM 식품 표기 강화하고 수입 규모 등 공개해야"

이번에 이슈로 불거진 해당 밀가루의 국내 진입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GM 식품의 표기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4 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석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는 "GMO 가 포함된 식품의 원재료 가운데 (비중기준) 상위 5 개 재료에 GMO 가 포함된 경우에만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GMO 원료를 모두 표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량 순서로는 상위 5 위에 들지 않더라도, GMO 가 전체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도 "일본·대만·태국 등은 GMO 의무 표시 대상에 원료 함량 순위뿐 아니라 전체 중량 대비 5%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GMO 의 중량 비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 월에는 식약처가 경실련이 제기한 GMO 수입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유로 '기업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들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CJ 제일제당[097950], 사조해표[079660], 대상, 삼양제넥스[003940] 등 국내 상위 4 개 업체가 지난 2010 년 이후 3 년 동안 수입한 대두(콩)와 옥수수 등 GMO 농산물은 총 486 만 8 천 t 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GMO 수입량 565 만 7 천 t 의 89%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EU 도 미국산 밀 유전자변형(GMO) 우려 검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한국 보건 당국이 미국산 밀에 대해 유전자변형(GMO) 우려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0 일 EU 회원국에 대해 미국산 밀이 GMO 변종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종자회사 몬산토의 GMO 종자로 재배된 연질 백색 밀의 오염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성명은 미국산 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지역에 매년 수입되는 미국산 밀 가운데 연질 백색 밀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현재 어떤 GMO 밀 변종도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상업적 재배나 판매가 승인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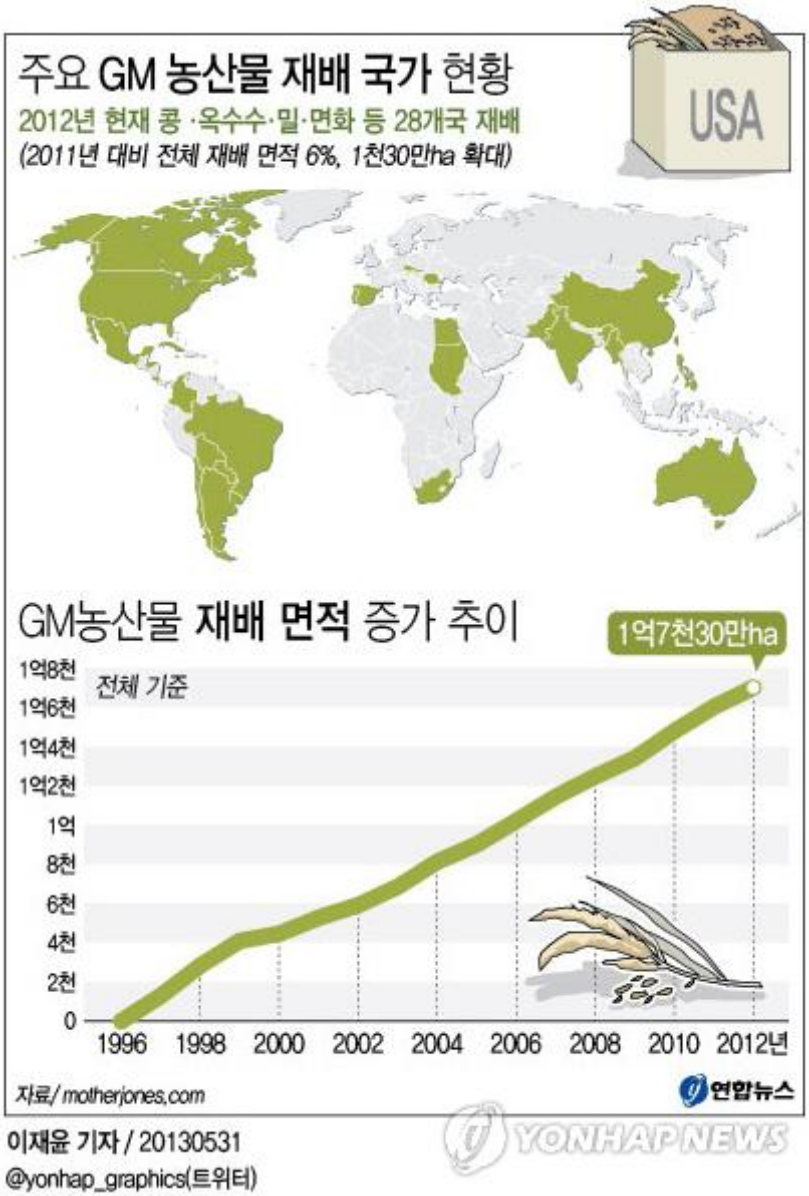
EU 집행위는 GMO 밀 문제에 대해 미국 농무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몬산토측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 성명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미국 오리건주에서 생산돼 유통된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EU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는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는 현재 단 두 종류의 GMO 작물의 역내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몬산토의 'MON 810 옥수수'와 독일 바스프의 '암플로라 감자'가 그것이다.

EU 의 GMO 옥수수 재배 허가 갱신은 GMO 작물에 대한 EU 시민의 거부감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픽> 주요 GM 농산물 재배 국가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유전자변형(GM·genetically modified) 밀이 발견되고, 해당 밀가루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GM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제도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끝)

美서 유전자 조작 밀 발견.. 국내 유입 가능성

밀은 유전자 조작 금지 품종

서울신문 조희선 기자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 조작 밀이 발견돼 관련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29 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밀이 오리건주의 한 밀밭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자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은 허가됐지만 유전자 조작 밀은 소비·판매가 불가능하고 재배도 철저히 금지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것과 같은 종류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종자다. 유전자 조작 밀이 몬산토의 연구 재배지에서 해당 밀밭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길러졌는지 등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농무부는 다만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유전자 조작 밀은 먹어도 안전하며 시중에 유통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미국 밀 수입국 정부에 유전자 조작 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몬산토의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 차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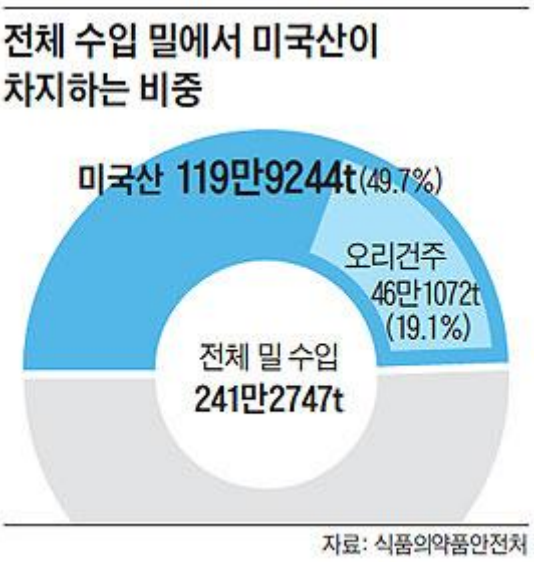
일본도 이날부터 미국산 일부 밀의 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2 만 4926 만 t 의 수입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일본의 주요 곡물수입 업체들은 밀가루 수입을 위한 입찰을 포기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산 밀 선적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미승인 유전자 조작 밀이 검출되면 이를 반송하기로 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산 밀에 대한 수입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현 단계에서는 없지만 수입중단 조치가 이뤄진다면 EU 전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과 타이완, 필리핀 등 미국산 밀 주요 수입국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미국은 이전에도 유전자 조작 식품 논란으로 농산물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 2006 년 독일 등 유럽에서 미국산 유전자 변형 쌀이 발견돼 유럽 각국과 일본에서 미국산 쌀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

美 유전자변형 밀… 식약처, 검사 착수

제분업계 "수입 잠정 중단"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미국 오리건주(州)에서 승인 안 된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되자, 미국산 밀·밀가루를 한 해 100만t 이상 들여오는 우리 보건당국도 미국산 수입 밀가루 샘플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다. 수입 밀가루 가운데 절반 정도(2012년 기준 49.7%)는 미국산이며, 미국산 중 3분의 1 정도가 오리건주에서 수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밀을 공급받은 국내 9개 업체 전부에서 샘플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다"며 "한 품목당 검사가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마친 뒤 3일 오후 2시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안만호 대변인은 "밀을 수입한 시기별로도 검사해 GMO 밀이 섞였는지 확실하게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GMO 밀 품종은 미 몬산토사가 1998~2005년까지 미국 16개 주에서 시험 재배하고 승인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GMO 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상품화를 포기하고 2005년 해당 종자를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30일(현지 시각) "발견된 GMO 밀은 인체에 무해하며, 시장에 유통된 증거가 없다"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미국산 밀 소비와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제분업계에서는 문제의 GMO 밀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소량으로 재배된 것을 발견한 데다, 봄밀이라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제분협회는 31일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밀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美 GMO 밀 발견..국내 유통 가능성?

SBS 한정원 기자

<앵커>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미국산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당국이 우리나라에도 유통됐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GMO 즉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된 미국 오리건주에서 들어온 밀이나 밀가루를 공급받은 국내 업체는 CJ 와 대한제분, 동아원 등 9 개 업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된 밀 중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부 물량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됩니다.

국내 제분업체들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리건 주 밀의 수입을 자체적으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통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입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어제(30 일)부터 오리건 주에서 수입되는 밀에 대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만호/식품의약품안전처 부대변인 : 일본처럼 수입 중지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EU 나 우리나라처럼 수입 시마다 검사를 통해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밀 자급률이 1.7%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밀의 양은 120 만 톤.

이중 오리건 주로부터 들여온 밀은 전체 수입량의 19%에 달합니다.

콩이나 옥수수와 달리 밀은 유전자 조작이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GMO 밀이 미승인 종자이긴 하지만, 안전성 검증은 마쳤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전자 변형 밀 발견 이후 일본은 오리건 주에서 생산된 밀의 수입을 잠정중단했고 EU 는 우리 당국과 유사하게 수입물량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